

청년 예산 연박싱 : 청년의 잠재력을, 더 큰 기회로

Financial Services Commission

“미래 빌드업 프로젝트”

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

청년미래적금

×

우리아이자립펀드



현장의 목소리



출산 앞둔 부부

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, 돈 걱정 없이 꿈을 키웠으면 좋겠어요.



대학 신입생 · 창업 준비자

배움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종자돈이 필요해요.



취업준비생 · 취업자

취업과 독립을 준비하며 미래를 위한 자산을 만들고 싶어요.



중소기업 재직자

대·중견기업보다 적은 월급으로 목돈 만들기가 어려워요.



소상공인

조금씩 모아 사업 확장의 기반을 만들고 싶어요.

청년기 진입 후

교육, 취·창업, 독립, 결혼 등 **목돈이 필요한 순간은 계속됩니다.**



교육비용

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

연 평균 **727**

만원



취업비용

연 평균

455

만원



창업비용

평균

2억600

만원



주거비용

평균 월세 보증금

2,900만원

연 평균 월세

492만원



결혼비용

평균

2,100

만원



**청년 자산형성이 청년의 미래를 만드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
보다 충출하고 강력하게 지원합니다**

청년미래적금



청년의 높은 호응을 확인하였습니다.

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기간(6~7월) 138.5만명 가입
→ 추가모집 조기 시행(잠정 9월)

청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.

“부모소득보다 나의 노력”, “소득이 없어도 미래 준비”,
“지역을 보다 두텁게 지원”

더 많은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 하겠습니다.

기존

(가입요건) 총급여 7,500만원 이하 가구종위소득 200% 이하
(대상자 약 580만명)

중소기업·소상공인 우대형 기여금
매월 본인 납입금의 12%

’26년 예산 7,446억원

개편

주요 변경내용

가입요건 폐지 → **모든 청년***이 가입대상
* 약 960만명

중소기업·소상공인 ✓ 매월 본인 납입금의 **15%**

우대형 기여금 확대 ✓ 지방중소기업 **우대트랙 신설** ▶ 본인 납입금의 **25%**

’27년 예산 약 **1.7조원** (정부안 기준)

확대된 정부 기여금 혜택은 2026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습니다.

청년이 매월 50만원씩 3년간 총 1,800만원을 적립할 경우



청년미래적금 만기 시 **생산적금융(청년형) ISA**에
일시납을 허용하여 자산형성상품간 **연계성**을 제고하겠습니다.

함께 심고



부모 납입



+



정부기여



오래 키워

장기 투자·운용

자본시장



첫 선택을 넓힙니다

교육



주택



도전



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,
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하며 중도인출·해지 없이 운용,
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**목돈을 '적립'**

ex 예시

※ 가정 : 연 수익률 6%, 세금은 고려하지 않음

시나리오 1: 연 120만원 투자 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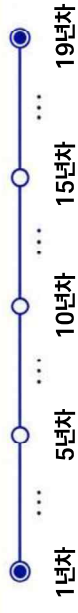
연 **120만원 × 19년**
연 120만원씩 19년간 적립·투자

만기시 적립금
4,294만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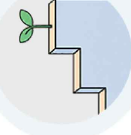
부모세대,
자녀로 인한 경제부담 경감

시나리오 2: 연 200만원 투자 시



연 **200만원 × 19년**
연 200만원씩 19년간 적립·투자

만기시 적립금
7,157만원



자녀세대,
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

지원의 목표는 ‘정해진 미래’가 아니라 **더 많은 선택, 더 넓은 내일을 열어주는 것**

처음에는 함께 만들어주고, 이후에는 스스로 만드는 힘을 키웁니다.



청년의 첫 자산부터 청년의 첫 자립까지, 생애주기상
도움이 필요한 시기마다 **금융이 함께하겠습니다.**